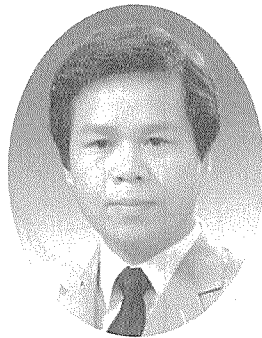




# 대산유국 외교정책과 협력 방향



李文培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분석실장〉

## 1. 대산유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부문의 취약성이 매우 두드러진 국가로 총에너지 수요의 해외의존도가 96%를 넘고 있으며, 이중 석유의존도는 63%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의 원유 공급 비중이 전체 수입원유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의 거의 절반을 중동에 의존하는 특정지역 의존율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48개국 중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부문의 국가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평가대상 4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도부문에서 41위, 에너지 소비증가율 부문에서는 최하위인 48위로 평가되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부문의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석유나 천연가스의 생산이 전혀 없는 대소비국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석유수급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원유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원유의 중동지역 편중이 약 76%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석유의 중동의존율은 향후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현재 석유수입의 지역 편중도(1994년)를 보면 중동지역이 76.6%로 최대 공급권역이며, 동남아시아 15.5%, 아프리카지역 4.0%, 중남미 4.0%, 구소련 등이 0.4%의 순이다.

세번째의 필요성에 대한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석유소비 증가이다. 소비증가 추세는 과거 2자리수에서 '90년대에 들어와 한자리대의 증가율로 낮아지기

	1991	1993	1994	1995(전망)
해외의존도 추이(%)	91.3	94.8	96.4	97.0
석유의존도 추이(%)	61.8	61.9	62.9	62.5

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4년에는 우리나라가 산유수출국이며 우리나라 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의 석유소비 대국으로 부각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총수요의 석유의존도는 낮아질 전망이지만, 그래도 석유소비 총량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용효율 향상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장기적으로 총수요의 석유의존도는 낮아질 전망이지만 석유소비 총량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용효율 향상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다음으로는 해외요인을 들 수 있다. 세계는 아직도 석유자원의 지역적 편중과 산유국의 자원내셔널리즘 고수, 특히 중동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인 등 세계 석유시장은 여전히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이같은 불안요인을 살펴보면, 다음의 몇가지를 우선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아직도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유엔의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문제는 유엔의 제재 해제 이후에도 이지역의 복잡한 국내외 상황 때문에 지역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이란에 대한 핵개발과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지원 의혹의 파문으로 야기된 미국의 대이란 강경조치가 내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확대될 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 현재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국들 사이의 평화협상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평화공존 지속성 여부도 눈여겨 보아야 할 분야일 것이다.
- 석유수출이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PEC(석유수출국기구)회원국들이 계속되는 유가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는 특히 상류부문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걸프전쟁 이후 더욱 고조되고 있는 중동 산유국의 경쟁적인 군비증강이다. 이는 산유국들의 재정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한편, 이지역의 내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전세계적으로 석유자원의 점진적인 고갈과 산유국들의 자원 무기화 정책의 유지, 중동을 포함한 주요 산유지역에서의 제반 불안요인을 고려한다면, 제3의 석유위기의 가능성은 언제라도 상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만일 새로운 석유위기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수입대국이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야마니 전사우디 석유장관이 향후 10년 이내에 중동지역 불안에 의한 석유위기의 초래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으며, 일본 석유공단 조사에서는 향후 5-7년 이내에 3차 석유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알려진 적이 있다.

앞서 지적된 몇가지의 대내외적 환경 여건을 감안, 석유를 장기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유국과의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와같은 외교적 노력은 국제석유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시기가 적기인 것이다.

## 2. 석유소비 추이 및 전망에서의 시준점

1994년의 우리나라 총에너지 소비량은 약 1억37백만톤(석유환산)이며, 이중 석유소비가 약 87백만톤(하루 약 170만 배럴)으로 약 63%의 석유소비 비중

	1991	1993	1994	1995(전망)
석유소비량(백만배럴)	425	565	621	670
수입금액(백만달러)	10,172	12,421	12,242	14,100

을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 수요전망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는 2000년에 약 1억23백만톤(하루 약 240만 배럴), 2010년에는 약 1억65백만톤(하루 약 322만 배럴)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이다(BAU case). 이같은 전망의 경우 석유 의존도는 2000년에 57%, 2010년에는 50%의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체 석유소비량은 이기간중 년평균 약 4.7%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4년 우리나라의 총 원유수입량은 약 5억74백만 배럴이며, 이중 중동 수입 의존도가 76.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입 의존도는 현재 약 15.5%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에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기존의 동남아시아 지역 석유수출국들이 자원의 고갈과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국수요 확대로 대부분 수입국으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이 지역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은 크게 줄어들거나 중단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총 원유수입 물량중 개발수입 물량은 1994년에 년간 전체로 약 530만 배럴을 기록하여 총수입 원유의 약 0.9%에 불과하여 상류부문 참여를 통한 원유의 물량확보 노력도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1차에너지의 석유 의존도가 57%, 석유의 수입 의존도가 99.7%이지만 수입원유중 개발원유 점유율은 현재 약 14%(하루 약 60만 배럴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일본은 21세기초까지 개발원유 수입물량을 하루 120만 배럴 수준을 목표로 하여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만일 새로운 석유위기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수입대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자주개발 목표 10%라는 구호를 내걸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총에너지 및 석유의 장기 소비전망을 감안할 때, 석유가 상당 기간동안 주에너지원으로 존속할 것이며, 그 소비량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산유국들과의 자원협력관계의 확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원유의 자주개발 확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 3. 지역별 석유수출의 잠재력 평가와 협력 방향

#### (1) 중동

중동은 세계 최대의 석유자원 부존 및 생산 수출지역이다. 최근 OPEC의 산유량 상한 규제와 비OPEC 지역에서 의 증산 영향으로 세계 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중동산유국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감소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세계석유시장에서 이 지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세계 생산능력의 OPEC 의존도 :

'90년 : 40% → 2000년 : 48% → 2010년 : 52%

따라서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산유국들과의 협력 강화가 매우 긴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국제석유시장이 구매자시장으로 유지되어오면서 정부와 민간부문 모두 이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나 정보의 교류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다. 향후에 사우디, 쿠웨이트 등 GCC 국가들과의 자원외교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등 경제협력 확대를 석유자원 확보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2) 아시아 태평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호주 등이 대 상국으로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는 현재까지 순조로운 실정이다. 석유자원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와는 천연가스, 호주는 철광석 및 유연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자원협력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현재 급속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시키고 있어 이 지역의 석유수요를 부추기는 주요인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석유자원의 고갈과 함께 역내국가들의 국내수요의 증가로 이들 지역국가중 브루나이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석유수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대부분이 국제시장에서 우리와 수출경쟁을 벌이는 경쟁국가들로 자원수입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의 가능성은 남미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출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브루나이와 유전개발 초기 단계인 베트남, 미얀마등과의 자원협력 강화는 필요하다.

#### (3) 중남미

석유자원 부존량 및 생산량이 전세계의 12 - 13%를 차지하고 있어 중동지역 다음의 생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주요 석유 생산국은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이며, 향후 개발 잠재력이 커서 석유 수출 여력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각국은 최근 정치, 경제적 상황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지역경제공동체 확대 등 경제 활성화 조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석유산업, 전력산업 등 대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 도입을 통한 경제자유화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 멕시코는 NAFTA에 가입한 이후에도 석유산업의

**앞으로 석유소비기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산유국들과의 자원협력 관계의 확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요정되고 있다.**

대외개방은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천연가스 산업은 최근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 베네수엘라는 남미 유일의 OPEC 회원국으로 최근 칼데라 신임정부가 출범하면서 석유화학산업 등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외국인에 대한 석유산업 투자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오리멸전의 대규모 개발에 성공하여 북미와 유럽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으로까지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는 메넬정부 출범 이후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상황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 경제자유화 조치도 시행중에 있다.

- 기타 페루,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각국도 경쟁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은 석유 수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정치적 안정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우리 상품의 수출시장으로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자원개발 참여와 자원수입을 통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우리 상품의 대중남미 수출시장 교두보를 확보하는 연계 전략 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4)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구소련 지역의 유전은 대부분 설비가 노후화되고 채투자가 부족하여 생산량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제2의 중동산유국으로 불리울 만큼 미래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할린과 야쿠츠크 등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유전 및 천연가스도 개발 초기단계로,

향후 극동 지역의 주요 자원공급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및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자원협력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정보 수집 및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 (5) 아프리카

아직 미개발 상태가 많아 개발의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아프리카 역내의 석유 수요가 적어 개발 이후 수출 잠재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개발의 가능성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자원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6) 북미, 서유럽

동 지역은 주요 선진국들이 위치하고 있는 최대의 석유소비지역으로, 생산의 대부분이 지역내 국가들의 소비로 흡수되며, 수출잠재력은 적다. 다만 현재 미국의 알라스카산 원유의 대아시아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등은 세계최대의 석유자원 부존및 생산·수출지역으로 장기적으로 세계 석유시장에서 이 지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4. 대산유국 자원외교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 (1) 자원협력을 위한 주요 활동 현황

현재 자원보유국과 자원협력을 위한 외교적 방법이나 활동의 범위는 다음의 4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산유국과의 쌍무적 협력 채널 및 재외공관을 활용하는 방안 이는 자원협력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등 정례적 외교채널을 활용하고, 주요 자원국 주재 재외공관에 자원관과 상무관, 무역관을 파견하여 주재국과의 자원외교 활동을 수행한다.

둘째, 산유국 주요 인사의 초청 및 우리측 인사의 방문 활동, 정부나 민간 관련 인사의 산유국 방문이나 자원조사단 파견, 산유국 주요 인사의 초청을 통하여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활동을 수행한다.

셋째, 자원보유국과의 공동조사 및 기술개발 활동 지원, 정부의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기업이나 투자기관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지원하고, 자원보유국과의 공동조사 활동이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정보 교환 및 협력확대를 추진한다.

넷째, 국제기구 및 회의 참여를 통한 다자간협력 채널 구축, IEA, WEC, WPC, IGU, IAAE 등 에너지 및 자원분야의 다자간 협력기구에 참여하고 자원협력관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으로 관련 정보 수집과 유력인사와의 친분 유대 강화를 추진한다.

## (2) 대산유국 자원외교의 문제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유국과의 자원외교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원외교의 종합적인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원협력 사업이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위주의 단편적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정책과도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에너지부문과 무역 및 산업교류와 해외투자, 환경 및 기술개발 분야와도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 에너지분야와 통상분야, 국제정치분야 등 각 분야별 외교활동이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갖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자원외교의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3) 대산유국 자원협력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80년대 말 이후 국제석유시장이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유지되어 오면서 정부가 산유국과의 적극적인 자원외교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와해되었다. 따라서 산유국 자원 협력을 주로 민간부문 활동에 맡겨왔으나, 이것마저도 민간공동 노력이 아닌 업계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4) 상호방문 및 초청을 통한 협력활동의 적극성이 부족하다.

대산유국 자원외교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 주요 인사의 상호 예방을 통한 정보교환 및 긴밀한 유대강화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상호방문이나 초청외교 활동이 빈약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활용하여 지역안정에 관한 관심표명과 함께 중동 산유국들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반대급부로 석유의 안정공급을 보장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중동의 이란 등 기존의 우호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사우디 등 산유국들과의 협력 기반도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고위 외교사절단을 중동지역에 파견하고 고위급 인사의 초청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기금의 수혜국을 동남아 및 중동지역에 집중시켜 양국간 협력에서 자국 이익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경단련 주관으로 대중동 민간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함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및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자원협력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정보 수집 및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으로써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매년 국내에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 또는 유치하여 산유국 각료 및 주요인사 초청 양국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5) 자원협력위원회등 기존 협력채널의 형식적인 운영이다.

기존에 설치된 양국간 쌍무 채널의 운영이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산유국과의 장기적이며 실질적인 자원협력의 결실을 얻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원협력의 실질적인 협의채널인 자원협력위원회가 일부 산유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대산유국 협력활동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6) 산유국 인사와의 친분관계의 유지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특히 중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문화 특성상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공적 경로보다 더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방문 및 초청이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주요 유력인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부처의 경우에도 고위관리 및 담당자의 빈번한 인사 변동 등으로 관련국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분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5. 대산유국 자원협력 강화 방안

- 대산유국 자원외교의 중요성 재인식
-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대산유국 정보수집과 분석 및 협상능력을 갖춘 국가별 전문 인력의 양성
- "자원협력위원회"등 쌍무협력 채널 운영의 내실화
- 상호 방문 및 초청활동의 강화
-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력창구 적극 활용
- 대산유국 자원협력을 통상 및 경제협력과 연계 시행

첫째, 자원안보 의식의 제고와 대산유국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 등 에너지자원의 대외 의존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능동적인 자원외교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구체화와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장기 에너지 수요전망에 기초하여 해외자원개발의 참여가 요구되는 대상자원의 선정과 대상국가 및 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한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부문을 무역 및 산업교류, 해외투자등과 연계하는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대산유국 정보수집과 분석 및 협상능력을 갖춘 국가별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 산유국을 포함한 해외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대외 협상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역별 국별 "Country Paper"를 작성,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자원협력위원회 등 쌍무협력 채널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대산유국 자원외교에서 다자간협력체계 보다는 쌍무협력 채널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협력 외교의 실무급 창구로써 자원협력위원회를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큰 산유국을 대상으로 하여 자원협력위원회의 신설 등 상호협력의 대화창구 개설과 위원회 개최의 정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도 유개공, 가스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 정유사와 산유국의 석유회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전략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정책의  
구체화와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섯째, 상호 방문 및 초청 외교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산유국과의 자원협력 및 상호 유대강화를 위하여 민관합동의 자원협력 사절단의 파견을 정례화 하고 정부 고위인사의 산유국 순방 및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 유력인사를 공식 초청하여 양국간 고위급 및 실무 채널간의 친분관계 유지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력창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석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및 자원분야의 국제기구 및 회의에 참여를 적극화하고 참석결과 및 입수정보

를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에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를 유치하여 다자간 협력채널을 통한 자원외교 활동을 전개하며, 국제기구 가입과 자원관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일곱째, 대산유국과의 자원협력을 통상 및 경제협력과 연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산유 개도국을 대상으로하여 석유 등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추구하는 한편, 자원분야 수입 구매력을 발판으로 해당국 또는 지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자원교류와 통상 확대를 상호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

아이디어의 숲

## 흐르는 잉크 「구멍뚫어」 막았다

현재 전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펜촉은 46살까지 보험사의 말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루이스 워터맨이 1883년에 개발한 발명품이다.

한달에 한두 건의 계약이 고작인 워터맨은 보험계약실적이 부진하여 좀처럼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고액의 계약이 한 건 이루어져 서명하려는 순간 잉크 한 방울이 똑 떨어져 버려 그만 계약서를 망쳐 버렸다. 계약자는 그것이 불길한 징조라며 다된 계약을 취소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당시의 펜촉은 지금처럼 구멍이 뚫리지 않은 밋밋한 모양이었기 때문에 잉크가 잘 떨어지곤 했다.

워터맨은 너무 분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잉크가 잘 떨어지지 않는 펜촉을 발명하기로 결심했다. 수많은 펜촉을 사다가 밤낮으로 가위와 줄을 이용하여 새로운 모양의 펜촉을 만들어 보았다. 그러나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연구는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그동안 버린 펜촉만도 1천개가 넘었다.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무렵, 드디어 펜촉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아래부분을 예리하게 잘라 지금과 같은 펜촉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 새로운 펜촉은 워터맨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글씨가 잘 써지고 잉크도 잘 떨어지지 않았다. 즉시 특허청에 출원했고 펜촉은 날개 돋힌듯 팔려나갔다.

워터맨은 지역별 통상실시권 사용요청을 해 오는 30여개의 기업에게 판매가격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는 조건아래 통상사용권을 주었다.

당시 대통령과 장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워터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누렸다고 한다.